



우리농업 농기업으로 거듭나야

다른나라 보다 시장개방 요구 많고 식량안보 중요성 커져
농업, 중요한 산업으로의 존속 위해 기업농으로 거듭나야

■ 김영수/ 전남대학교 교수

21세기에 접어들어 우리농업은 아직도 가계와 경영이 미분리된 농가단위의 소농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사실 지금까지 국민경제가 고도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농업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업은 여전히 가족노동력에 의존하는 경영의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농업의 구조적인 취약성 때문에 제기되는 농업의 위기와 정체성은 어쩔 수 없이 자초한 숙명적인 것으로써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되는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게다가 많은 보조금과 기계화된 영농 체제에서 생산된 농업선진국의 농산물이 경쟁력을 가지고 개방된 시장으로 들어옴으로써 농업후진국의 경쟁력은 상실되고 있다.

우리농업과 같은 호당 경지면적이 1.37ha를 가진 농업인이 기계화 되고 보조금도 많이

받는 농업선진국의 농업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경영규모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한 농경지의 내연적 확대를 나타내는 경지이용율은 보다 적어져 겨우 110.8% 내외이다. 이와 같은 추세로 농경지는 점차 유희지화 되어 휴경율이 높아져 지극히 한정된 농경지가 황폐화 되거나 공업용지, 도시지역, 골프장 같은 위락시설 등 비농업용으로 전용되고 있다.

또한 농가호당 농업인구는 5.0인에서 점점 적어져 3.1인이 되는 등 농업노동의 양적·질적 저하를 나타내고 있어 농업생산 기반이 더욱 열악하게 됨으로써 항구적인 농산물 수입 의존 국가로 전락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경지규모별 농가분포는 2.0ha 이상을 소유한 계층이 약간 증가하는 추세로 11.1%를 보여주나 1.0ha미만의 영세소농은 예나 지금



이나 여전히 60%이상 이어서 경영규모의 영세성을 증명해 주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농은 소득이 아닌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농업을 말한다. 농업과 비농업간 이윤의 격차가 없는 동등한 위상에서 정상이윤을 얻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기업농의 개념은 흔히 말하는 기업적 농업경영형태의 농업을 추구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생산된 농산물을 유통·가공·판매함으로써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개

별농가와 노동력 부족 등으로 농업경영이 곤란한 농업인의 농작업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하여 영농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농업법인 그리고 경영의 수직적 통합경영이나 수평적 통합경영을 하여 구성원의 경제적 편익을 높이려는 영농조합법인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 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목적만은 단 한가지 즉,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업도 비농업부문과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

표. 연도별 주요 농업구조 지표

구분	연도	1980	1985	1990	1995	1999
호당경지면적(ha)		1.02	1.11	1.19	1.32	1.37
경지이용률(%)		125.3	120.4	113.3	108.1	110.8
휴경률(%)		-	0.9	1.9	3.2	0.9
호당인구(인)		5.0	4.4	3.8	3.2	3.1
경영규모별농가구성비(%)	총농가(천호)	2,155	1,926	1,767	1,501	1,382
	경종외	1.3	2.4	1.4	1.6	1.5
	0.5ha미만	28.3	27.7	27.3	28.8	35.2
	0.5-1.0	34.7	35.6	30.8	28.8	28.1
	1.0-1.5	20.4	20.3	19.9	17.7	15.7
	1.5-2.0	8.9	6.3	10.8	10.2	8.4
	2.0이상	6.4	5.7	9.8	12.9	11.1

자료: 농림부

논 단



“

본격적인 개방시대를 맞아 외국농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농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존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남은 농민들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해 이제 우리농업은 기업농(Agribusiness)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

하여 살아 남을 수 있어야 농업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여건 변화와 기업화 필요성

그동안 진행되어온 GATT/WTO 협정의 기본원칙은 무역과 금융의 자유화이다. WTO 협정은 비교우위론에 따라 각국의 식량 수입 및 수출 능력을 신장시키므로 소비자는 값싼 식품을 구매할 수 있고 각국은 자원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 경제는 1997년도 말 심각한 외환부족으로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고, 경제운용에 있어서도 저성장, 고금리, 긴축재정 운영이 불가피하게 되는 등의 경제위기는 경제성장률 하락은 물론 민간소비 부문을 급격히 위축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여건은 시장개방 압력의 가속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UR협상 결과는 2001년 쇠고기를 개방시켰고 재협상을 앞두고 있으나 2004년까지 쌀을 완전히 개방할 예정이다. 물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이미 모두 개방되었다. 동일한 아시아권 내에서도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시장개방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

며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 곡물시장의 불안정성에 따른 식량안보의 필요성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증대되고 있다.

국내적인 여건 변화로는 농산물 시장의 주도권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전환될 것이다. 고소득 시대에 따른 농산물 소비의 다양화로 제품 차별화가 가속화 되고, 외식산업의 대폭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식품시장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저장·가공부문의 역할은 계속 증대되고 경영의 수직적 통합에 의한 복합산업화도 진전될 것이 예상되므로 수요예측에 따른 생산의 질적 양적 변화가 요청된다.

다음으로는 국내 농산물 시장에서의 농산물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거의 모든 품목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경쟁상태에 놓이게 되면서 품질과 가격 면에서 경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농산물은 수입농산물과의 품질경쟁에서 차별성을 높이고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실현하지 못한다면 경쟁력에서 뒤져 외국농산물에 의한 우리농산물 시장의 잠식이 불가피 할 것이다.

결국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국제시장으로의 수출이 가능한 수준의 실력이 있는 농업 또는 그러한 농산물만이 국내 시장에

서도 지속적인 생산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또한 더욱 증대될 것이다.

세계는 지금 '리우선언' 이래 각 나라마다 환경문제에 꾸준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인간이 식용으로 이용하는 농산물의 생산과 이용, 소비 등 환경에 대한 많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안전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농업이 원천적으로 맡고 있는 식량안보, 국토·환경보전 등 국가적 차원의 역할 뿐 아니라 농촌 사회 유지, 인구의 도시집중 억제 등 사회적 기능도 계속 증가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농업기본법'에서도 제시된 남북통일에 대비한 농업의 역할이다. 구조적인 식량부족 상태인 북한과의 통일에 대비하여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격적인 개방시대를 맞아 외국농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에서 농업이 중요한 산업으로 존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선을 다해 살아남은 농민들의 획기적인 도약을 위해 이제 우리농업은 기업농(Agribusiness)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기업농의 전제조건

기업농은 외형적인 경영규모의 확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반드시 법인으로 등기를 필하는 법적조건을 갖추라는 말은 더더구나 아니다. 오히려 경영목적과 경영조직이 기업가적인 것으로의 개선이요, 경영주가 갖추어야 할 기업가적인 경영마인드요,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 기업회계 절차로의 개선을 말한다.

경영규모의 크고 작음에 구애받지 않고 법

인 여부는 따지지 않더라도 경영이 소비주체인 가계와 반드시 분리되어 경영이 추구하는 목적이 소득개념이 아닌 이윤의 극대화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경영조직은 경영규모를 규정하는 토지·노동·자본재의 부존 상태와 이용 가능성을 파악하여 이들의 적정 투입과 결합, 배분이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을 갖춘 작목으로 구성된 경영부문을 편성하여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경영주는 의사결정의 주체로서 경영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여건으로 작용하는 자연적이며 경제·사회적인 불확실성을 냉철하게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 하려는 경제적 합리성으로 무장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영계획에 따른 신속한 실천과 결과에 대한 성패를 진단,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것이다. 또 보다 나은 경영을 위해 새로운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능력과 경영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영의 합리화는 경영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경영의 기본원리를 성실하게 따져보는 경영분석과 경영진단이 필수적인 것인데 이는 기업회계 조직에 의한 경영활동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산하며 정리하는 완벽한 부기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경영은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분석과 생산부문별 수익성 분석 등을 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수행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체계적인 분석이 선행되지 않고는 기계화도, 시설확충도, 신기술 도입도, 농업생산의 공장화도, 경영컨설팅도, 경영개선을 위한 벤치마킹도 그리고 기타 다른 형태의 농기업화를 위한 그 어떤 노력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농약정보**